

교회와사역

인터넷 설교 앞에 선 나

마가복음 4 장 1-20 절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가르친다. 그런데 오늘날 인터넷이 지배적 커뮤니케이션이 된 상황에서 우리는 점점 교회의 예배를 통해 듣는 설교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듯하다.

설교는 흔히 접하는 인생 회고나 실생활의 유익한 강의가 아니다. 목사의 설교는 간절한 선지자의 외침처럼 성도들의 영성을 깨우며, 때로는 죄를 책망하며, 삶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성장하여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전하고도 철저한 교리를 가르치며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복돋아야 함도 물론일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설교를 강의나 세미나처럼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 정도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설교는 내 자신을 낮추며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한번의 마우스 클릭이나 핸드폰 터치로 언제 어디서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설교나 성경 강의를 쫓아다니는 데 멈추는 이는 참 예배와 설교의 의미를 놓친다.

또한, SNS 나 Youtube 등을 통한 교회와 사역의 유용한 정보들이 잘못 적용될 때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 많은 경우 그 정보와 경험들은 특정한 장소(교회)와 시간에서 나온 것인데 그 시,공간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받아 들여 자신이 속한 교회와 그 교회의 사역에 무리하게 적용하면 교회의 질서와 화합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인터넷 설교에 의존적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본인이 속한 교회의 목사의 설교를 등한시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귀한 자료와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지혜와 더불어 나와 함께 사역하며 섬기는 목사의 설교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사이버 공간의 유익한 성경공부, 설교, 강좌, 찬양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 꿇는 예배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삶 속에서 신앙을 복돋우는 보조 수단으로는 훌륭하지만 지나친 의존은 조심해야 한다. 자칫 교회 안의 예배와 기도와 교제를 소홀히 하거나 목사의 권면 보다 인터넷 상의 상담에 의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내가 섬기는 교회는 차선으로 밀려날 수 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보면, 성도가 자신만의 (사이버 공간) 교회를 내적으로 만들어 낼 때 몸 담고 있는 교회를 향한 헌신과 교회 질서에 대한 순종이 사그라지며 새로운 형태의 '교회 분열'을 초래할 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섬김의 교회 '식구'들이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함께 '손잡고' 일하는 데 더 큰 신앙의 가치를 두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주어지는 설교 말씀을 겸손히 받으며, 목회자가 이끄는 성례를 귀하게 참여하며, 신앙 위에 세워진 한 가족 공동체로 서로를 용납하고, 때론 교회의 권위로 주어지는 권면도 눈물로, 감사로 참아 내면 좋겠다.

교회와 기독교에 관련 된 인터넷의 무수한 자료와 정보를 매일 접하고, 듣고, 메모하는 나에게도 그것들은 단지 섬김의 교회 사역을 위한 재료일 뿐이다. 내가 '선 곳에서' 내가 사역하기에 '가상의 공간'에서 얻는 설교와 찬양과 강의, 모두가 내 신앙의 비타인일 뿐이다. 나는 진리의 선 상에 선 목회자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을 때 성도는 행복하다고 믿는다. 바른 교회, 바른 목회, 바른 사역을 추구한다면 힘들어도, 때론 머리 아픈 일이 생겨도 늘 샘 솟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서로 '부딪히며' 사역하고, '열싸안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마주 앉아' 말씀을 듣고 되새기는 '현장의 교회'인 섬김의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 전진하기를 꿈꾼다. 교회 일을 하며 애쓸수록 그 사역 나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고 새로운 안식의 출발이기를 늘 꿈꾼다.

- 김훈태 집사 -

한 주간의 기도

"그리스도의 걸 모습만 지니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민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1 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가족, 성도와 이웃에게도 감사하며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1. 오늘은 선교주일이며 금주는 선교주간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더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의 증인들이 됩시다.
3. 선교찬양집회가 금요일(30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며, 교회와 성도에게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준비합니다.
▶선교집회 11/30(금) 오후 8시 & 12/2(주일) 오전 11:30 새벽 기도회(12/1 토) 오전 7시
▶찬양집회 12/1(토) 오후 6시 & 12/2(주일) 오후 5시
▶찬양 워크샵 (12/1 오전 11 시)
4. 강사 목사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5. 각 위원회와 사역팀은 2018 년 사역들을 검토, 결산합니다. 관련 행사와 지출을 파악하여 2019년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6. 17 주간 성경 일독운동이 Oikos 사역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점검해 줍시다.
7.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천국복음을 전하며, 감사와 풍성한 삶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11/25	12/2	12/9	12/16
주일예배기도	구은강집사	최내권집사	최선윤집사	구 민집사
	11/30	12/7	12/14	12/21
금요일예배기도	박진성집사	오정은집사	김태성집사	정줄리권사
	11/25	12/2	12/9	12/16
주일헌금위원	김훈태집사/유동숙집사		홍현근집사/구은강집사	
	11월		12월	
주일안내위원	최내권집사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감사로 누리는 기쁨 / 빌립보서 4:4-7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힘드나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환경을 초월해 기뻐할 수 있다. 관용은 손해를 끼치며 핍박하는 사람에게 "뭐 그럴 수도 있지"하며 너그럽게 넘어가는 마음이며,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나 미움이 깊다면, 관용의 여유도 기뻐할 이유도 찾기 힘들게 된다. 마음을 관용으로 채워야 한다.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태산같은 염려와 걱정 거리를 초월해 기뻐하게 된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지 말하는 하소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가 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면,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 따라서, 관용을 베풀며 감사로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때이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됩시다! / 요한복음 15:1-11

예수님께서 가지를 구분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됩시다! / 요한복음 15:1-11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한해 동안 우리 삶이 어땠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신비한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사랑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열매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열매, 예수님의 보혈의 열매,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친밀한 교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우리는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깨끗해 집니다.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교만과 욕심, 이기심과 다툼 등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청소될 때, 우리는 이에 비례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맺는 사랑의 열매는 증거가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맺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맺게 되는 사랑의 열매는 우리에게 큰 기쁨, 큰 유익이 됩니다.

올 한해, 얼마나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열매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원하는 만큼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더욱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J E S U S L O V E S Y O U

섬김의 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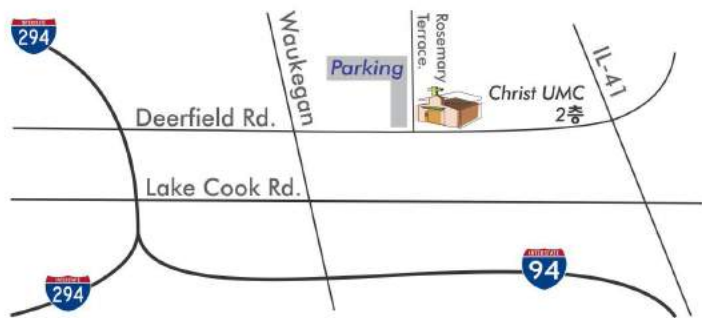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30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5:4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November 25, 2018

기쁨, 회복, 나눔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감사의 달
선교주일 /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은강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한복음 15:1-11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됩시다!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420장 / 너 성결키 위해 (통일찬송가 420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김훈테 집사, 유동숙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찬송 505장 / 온세상 위하여 (1, 3절) (통일찬송가 268장)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예배

8:00 pm

기도 : 박진성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열왕기하 23:21-23, 역대하 35:1-19
 유월절을 지키다!

'감사'는 성경적 원칙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현해왔다. 또한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쉽게 잊는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다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를 상기시키는 성경구절 10 가지다.

1. 데살로니가 전서 5 장 18 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 시편 107 편 1 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3. 에베소서 5 장 20 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4. 골로새서 3 장 16-17 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5. 빌립보서 4 장 6 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 골로새서 4 장 2 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7. 시편 95 편 2-3 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
8. 시편 100 편 4 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9. 고린도전서 9 장 11 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러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0. 시편 9 편 1 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EM PASTOR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81:10 1:27) (유복) "내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